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건축·도시공간은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가?

- 건축을 비롯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건축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발효됨
- 프랑스 건축법 1조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로 시작하여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 건축법 1조 전문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 건설의 질,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 및 도시경관의 존중, 문화유산 보존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건축 및 도시설계에 대한 허가는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La création architecturale,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leur insertion harmonieuse dans le milieu environnant, le respect des paysages naturels ou urbains ainsi que du patrimoine sont d'intérêt public. Les autorités habilitées à délivrer le permis de construire ainsi que les autorisations de lotir s'assurent, au cours de l'instruction des demandes, du respect de cet intérêt.

창조적 공간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건축기본법 제9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축문화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건축문화진흥분과(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를 두도록 하는 등 창조적 공간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함
- 최근 공공디자인의 도입, 근대역사문화환경의 활용, 전통건축·도시공간의 보전,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등 건축·도시공간의 창조적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회복, 건축·도시공간의 가치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한국 건축·도시문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1. 건축 · 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 회복

■ 국가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상징공간 조성

-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념비적 건축물 건립, 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랑프로제(Grand project)를 추진하여 라빌레뜨공원, 루브르박물관, 미테랑 국립도서관, 라데팡스 등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국가의 상징공간을 확충한 바 있음
- 경복궁 복원, 광화문광장, 승례문 가로광장 등 주요 거점공간을 연계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도 지역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조성을 추진하여, 건축 · 도시공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전통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진화방향 모색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요소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한브랜드 육성 종합계획(2007)”에서 한옥, 한복, 한식 등 6개 브랜드에 대해 현대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함
- 최근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한옥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42%에 달함, 국토해양부, 2008)를 반영하여 한옥의 생산 및 성능을 현대화 ·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신한옥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 중장기 R&D사업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한옥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통공간의 현대적 진화방향을 모색하도록 해야함

■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

-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갤러리의 경우 근대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함께 관광자원화에 성공하였으며, 상하이 신토티(新天地)의 경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여 외국인과 관광객의 방문증가를 유도하였음
- 미래의 건축문화자산이 될 수 있는 근 · 현대 건축도시문화자산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保全, Conservation),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A. 국가상징공간 조성
(프랑스 그랑 프로젝트)



B. 한옥의 현대적 진화(경주 라궁)
사진자료: 구가건축

2. 건축·도시공간의 가치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일반인에 대한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영국의 경우 런던 건축센터-오픈하우스(London Open House), 영국 켄트 건축센터(Kent Architecture Center)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과 도시환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 초·중·고 교과과정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문화센터 등에서 시민건축대학을 운영하고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수한 건축·도시환경의 필요성과 문화로서 공간환경의 인식을 유도함

건축·도시문화를 활용한 장소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필두로 건축·도시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도시발전을 선도하게 하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왔음
- 각 지자체 별로 건축·도시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문화 관련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근현대 건축박물관 및 지역건축문화거점 조성

-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건축·도시문화 선진국들의 경우 건축자료의 구축, 자료에 대한 교육, 대중적 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건축 정책관련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센터와 연계운영되고 있음
- 국가의 건축자료구축과 관련된 연구·교육·전시·보존을 담당할 수 있는 근현대 건축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서 건축문화의 축적·확산의 거점으로 삼고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건축문화거점을 지자체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A. 장소형 문화콘텐츠발굴
(스페인 구겐하임빌바오)

B. 건축박물관 조성(네덜란드 NAI)
사진자료: <http://en.nai.nl>



3. 한국 건축 · 도시문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한국 건축 · 도시문화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 한국은 70~80년대 중동건설시장 진출, 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진출 등 건설시장 해외진출이 활발했던데 비해 건축 · 도시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설계 · 기획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진출 및 이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기존의 건설시장 진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기획 · 설계 · 전시 · 출판 · 홍보 등 한국의 건축 · 도시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국제 건축 · 도시 · 조경 비엔날레 개최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베니스 국제비엔날레나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국제건축전의 경우 자국 건축가 및 건축 · 도시 · 조경문화 알리기와 국제경쟁력 확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건축 · 도시 · 조경분야는 해외 선진국이나 타 문화산업에 비해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부족함
- 건축 ·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의 개최는 건축 · 도시문화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좌표설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과 홍보 · 관광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우수 건축가 · 도시설계가 · 조경가의 육성 및 지원

- 백남준, 정명훈 등 저명예술가는 국가의 전반적인 예술적 토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저변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 · 도시 · 조경분야의 경우 이러한 전문가의 육성 · 지원을 위한 토대가 미흡한 상황임
- 젊은 신진 건축 · 도시 · 조경 전문가 및 여성전문가의 육성 · 발굴 ·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한국의 건축 · 도시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권영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계연구실 부연구위원 yskwn@auri.re.kr 031-478-964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제6호

발행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 온영태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710호

전 화 | 031-478-9600 팩 스 | 031-478-9609 홈페이지 | www.auri.re.kr

수록된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호는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